

'3토'와 평안

제196기 2014년 10월 28일

'9평 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4년 10월 23일까지 1억 8,115만 명의 중국 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했다.

마카오 진상거점의 이야기

글/마카오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대륙과 자유롭게 왕래하는 마카오에는 대륙 관광객이 매우 많고, 파룬궁 진상 거점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파룬궁 수련생의 소개를 들어보자.

하루는 체격이 건장해 보이는 북방의 중년 남자들이 다싼바파이팡(大三巴牌坊, 성바울 성당) 파룬궁 진상 거점에 왔다. 그들은 파룬궁의 진상 전시판을 열심히 보며 가끔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망당석(亡黨石) 사진을 보면서 그들은 “이것이 사실일 수 있나? 정말 이것을 그냥 놔 두었을까?”라고 속삭였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이 망당석은 구이저우 펑탕현의 관광지에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중국의 ‘지리 잡지’에서 먼저 보도됐습니다. 그 후 많은 대륙 매체가 보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바로 입장권입니다. 며칠 전에 이 지역 여성이 왔는데, 그녀는 ‘이건 바로 우리 고향에 있는 돌이랍니다. 와서 보는 사람이 많아져 관광지로 되었지요. 지금은 이 돌을 횡재석이라 부르고, 손상되지 않게 두꺼운 유리로 보호막을 쳤어요. 진짜 우리 고향도 부유해 졌어요.’라고 말했어요.” 나의 말을 들은 이 북방의 남성들은 “네네, 정말 신기하네요!”라고 했다. 나는 곧 그들에게 ‘3토 보평안!’과 탈당고조에 대해 알려주면서 단원인지, 혹은 당원인지 물었다. 그중 한 사람이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또 그럼 어렸을 때 붉은 네티아는 맸지요? 라고 말하자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면서 “이 분은 당원입니다.”라고 말했고, 그 사람은 또 “이 분도 당원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와! 모두 당원이네요. 빨리 탈당하세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평안이죠. 탈당하면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내가 두 분에게 가명을 지어드릴게요. 당신은 리밍안(李明安), 당신은 리화안(李華安), 기억하셨죠? 라고 말하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네!”라고 대답하고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중 한 사람이 나의 팔을 잡아끌면서 “우리 형님 한 분도 탈퇴를 안했는데 가서 탈퇴시켜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더 설명하지 않고 나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억지로 밀고 가서 그들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방금 신기한 ‘망당석’을 봤고, ‘천안문 분신자살’은 조작극이라는 진



상자료를 봤어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파룬궁을 연마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은 다 탈퇴했어요. 형님도 빨리 탈퇴하세요!”라고 말한 후 나를 향해 “우리 형님은 높은 관리님이 좋은 이름을 지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관리이면 민생을 잘 살펴 덕을 쌓아야 하지요! 라고 말하면서 리더안(李德安)이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다. 이 ‘큰 형님’은 “네네, 우리 동생들도 모두 탈퇴했다니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

“앞을 바라보면 파룬은 여전히 돌고 있다”

[밍후이왕] 2002년 6월 말, 나는 1년 동안의 불법 노동교양 끝에 네이멍구 투무지 노동교양소로부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기차에서 나는 빈 좌석을 보았는데 맞은편에 40대 남성이 앉아 있었다. 나는 빈자리에 앉으면서 화제를 꺼내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어디로 가시죠?”라고 물었다. 나는 직접 그에게 네이멍구 투무지 노동교양소로부터 집에 돌아가는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아주 놀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노동교양을 당했나는 표정이었다.) 나는 “당신 보기에 제가 나쁜 일을 할 사람 같나요?”라고 묻자 그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무엇

때문이죠?”라고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인지 맞춰보라고 하자 그는 “당신이 틀림없이 파룬궁을 연마하기 때문이겠죠.”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알아 맞혔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진상을 알려주었다. 나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나를 위안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조급해 하지 말아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우리 백성들은 모두 말하고 있어요. 앞을 바라보면 (그는 팔을 앞으로 흔들었다) 리훙쯔(李洪志) 선생의 파룬(法輪)이 여전히 돌고 있고, 뒤를 바라보면 (그의 팔이 뒤를 가리켰다) 장쩌민이 한 무리 부패한 범죄자들을 이끌고 종말을 고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글/거메이

미국 KRCB 라디오방송국 :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의 만행

[밍후이왕] 미국 캘리포니아 KRCB 라디오방송국 2014년 10 월 14일 보도.

최근 몇 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중공의 만행에 대한 외부의 고발과 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보도는 감금당한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공에 의해 장기를 생체적출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도를 보면 인권 관찰 주임 브래드·아담스(Brad Adams)는 “중국에서 줄곧 인체의 장기가 매매되고 있다. 우리는 중공이 처음에는 이러한 지적을 부인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승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의 한 촬영팀이 동북의 한 병원에서 새로 증축한 건물을 촬영했는데, 이 건물은 전문으로 장기를 의식하는 장소로 사용되었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시연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

다. 이런 장기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아담스는 “중공은 독재 정권이다. 그러므로 파룬궁 수련생

이 신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도 생체 장기적출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라고 표명

했다.

궈언쭤(郭恩佐)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면 또 다시 납치되어 감옥으로 갈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2008년 고향 중국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궈언쭤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우리들의 신체는 모두 매우 건강합니다. 중공은 우리를 생체 장기적출의 장기은행으로 삼았습니다. 중공은 당신이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곧 바로 당신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하나의 생산 라인처럼 당신의 장기를 적출한 후 시체를 소각로에 넣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없어집니다.”라고 말했다.

교장이 ‘3퇴’하고 생명을 보존하다

글/신메이

[밍후이왕] 파룬궁이 박해를 받은 후 나는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알리려고 베이징으로 탄원을 갔다가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교직을 잠시 정직 당했다. 교장이 항상 나를 찾아와 옛정을 나누었지만 사실은 나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였고, 나는 이 기회에 그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했다.

처음에 교장은 감히 듣지 못하고 다른 화제로 말을 돌렸다. 한 번은 내가 그에게 “저는 우리 현의 모모 공장장이 하는 말을 듣고 아주 감동했어요.”라고 말하자 그는 “무슨 말을 했는데요?”라고 물었다. 내가 “그녀는 한 평생 많은 표장을 받았고, 스스로 모범적이고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법륜(轉法輪)을 본 후에야 자신이 이전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교장은 아주 놀라면서 “무슨 책이 그리 신비력이 있어요?”라고 물었다. 내가 “하나의 천서로서 읽는 사람을 환골탈태시킨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급히 “그 ‘전법륜’을 나도 읽어 볼 수 있을까요?”라고 했다. 나는 즉시 전법륜을 찾아 교장에게 드리고, 비디오 기계로 ‘풍우천지행(風雨天地行)’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진상 동영상을 다 본 후 책을 갖고 기뻐하면서 우리 집을 나갔다.

교장은 음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업으로 양곡을 수매했다. 그는 학교에 오면 늘 교원들에게 자신이 양곡을 수매할 때 근을 속이는 기교를 자랑했다. 그럴 때 어떤 교원이 좀 못 마땅해 하는 표정을 지으면 교장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을 정당화했다. “나는 팔고 싶어 하는 것을 사주고 있소. 모모 탐관을 보시오. 몇몇 억을 탐오했고, 모모 탐관은 첨이 몇몇이나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심의 불만을 내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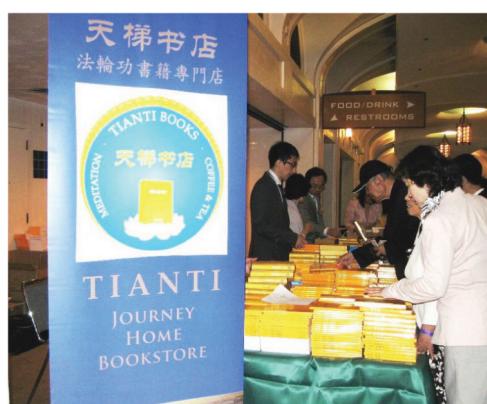
10일이 좀 지나 그는 나를 찾아와 책을 돌려주면서 “이 전법륜은 너무나 좋습니다. 책을 본 후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도리를 알게 되었으니 나는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야겠습니다. 정년퇴직하면 나도 노형을 따라 파룬궁을 연마하겠습니다.”라고 격동되어 말했다. 나는 그가 사당의 탄압이 두려워 지금은 감히 수

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굳이 권고하지 않고 3퇴(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하여 평안을 보장 받는데 대해 말해 주었다. 그는 기꺼이 응낙하고 가령으로 중공사당에서 탈퇴했다.

그 후부터 그는 완전 딴 사람으로 변했다. 교원들을 헬책하지 않았으며, 교원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 주었다. 그의 이웃들도 그가 양곡을 수매할 때 저울눈을 속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좋다고 말했고, 상급에서 나의 정황을 물으면 나를 위해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었다.

2008년 가을 어느 오후, 점심시간에 술을 좀 마신 교장은 과속으로 전동차를 몰아 학교로 오고 있었다. 앞에 웅덩이가 있는 것을 똑똑히 보지 못해 전동차가 들썩하자 그는 차에서 튕겨나가 길에 떨어졌다. 체중이 90kg가 넘고 고혈압까지 있던 그는 곧 정신을 잃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달려왔다. 교장은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자고 그를 권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니 아픈 곳이 없자 곧 일어나서 전동차를 타고 학교로 갔다.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오늘 대법(파룬궁)이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오. 고혈압인데다 그렇게 튕겨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있겠소! 정말 ‘3퇴 보평안’이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오.”라고 말했다.



2014년 10월 16일, 천제서점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중심 빌·그라함 시청 강당 풀에 설치한 특설 매장에 많은 다국어 파룬궁 서적이 있다.